



가톨릭마산

옆집 아들 예수

옆집 아들이 이번에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온갖 소문의 주인공이 됩니다. 살림살이 고만고만한 거 다 알고, 그래서 고액 과외를 시킬 여유가 없는 것도 알고, 머리에 좋다는 등 푸른 생선만 골라다 먹인 것도 아닐 텐데... 내 아들보다 그 집 아들이 더 나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은 시샘이 되고, 점점 질투로 변져, 끝내 미움으로 드러납니다. 이젠 옆집을 떠올리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옆집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 마음이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마음과 뜻이 아로새겨져 있다지만, 시간이 흐르고 성장해가는 동안 하느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일쑤입니다. 사랑이니, 나눔이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력 있어 보이는 것들에 눈길이 더 가게 마련이죠. 나, 내 것이 아니면 눈에 안 들어오고, 성에 안 차는, 그렇게 점점 하느님보다 내가 더 커버린 상태가 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주어진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누군가, 설령 그가 하느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미워 보일 수밖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인간 예수는 나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느님도 그러라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냈습니다. 다만,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저 태어났으니 그저 산다 말하는 여느 우리와는 달리, 삶이, 생명이, 과연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깨닫고, 근원이신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고 쫓아갔을 뿐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시선,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에 물들어버린 동네 사람들로선 결코 이해하지 못할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나보다 조금 못나 보이는 옆집 아들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동네 사람들의 가리어진 눈이 문제였다면 문제랄까요.

사랑받기는 원하면서 사랑하고자 다가서기를 귀찮아하는, 이해받기를 원하면서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기를 꺼려 하는,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내가 먼저 용서하기에는 지독한 조건을 내걸어야 하는, 하느님의 방식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지 못할 옆집 아들 예수의 일상입니다. 오늘도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와 같은 모습, 옆집 아들처럼 다가오십니다. 아니, 어쩌면 내 주위에 살고 있는 이들이 또 다른 예수의 얼굴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그들에게서 하느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가, 그들은 여전히 옆집 사람에 불과한가, 아니면 응당 나와 같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용서받고 이해받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비치는가...

참새 눈에는 나락만 보이고, 이몽룡 눈에는 춘향이만 보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라면 응당 하느님과 그분 마음에 드는 이들의 일상과 신앙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범함 속에 진리가 숨어있음을, 하느님은 결코 특별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분이 아님을, 보통의 일상 안에서 평범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기꺼이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자비로운 아버지 하느님임을 깨닫는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김정우 라파엘 신부 | 진해장애인복지관장



제 1 독 서 에제 2,2-5

화 답 송 ©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제 2 독 서 2코린 12,7-10

복 음 마르 6,1-6

주일 진레

측은지심 惻隱之心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타고난 네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가엾이 여기는 측은지심 惻隱之心, 둘째는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수오지심 羞惡之心, 셋째는 겸손하게 남에게 양보하는 사양지심 辭讓之心, 넷째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시비지심 是非之心이다.

맹자는 이 네 가지가 도덕의 근간인 사단 四端으로써 인 仁·의 義·예 禮·지 智에 이르는 길이 된다고 했다. 또 그중에서 측은지심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원초적 도리요, 고유한 본성이며, 왕도정치 王道政治의 으뜸이 된다고 했다.

어린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누구나 뛰어들어 그 아이를 구하려 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남의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순수한 본성인 측은지심의 발동 때문일 것이다.

프랑스 투르의 주교 마르티노(316~397)는 군 생활 중 성문을 지나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에게, 측은지심으로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반으로 잘라 입혀준 일이 계기가 되어 사제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순교자가 아니면서 처음으로 성인 반열에 올랐다.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1910~1997)가 지금까지 존경받는 이유는 가난한 자이면서 더 가난하고 병들고 더 어려운 자들을 위해 한 생을 측은지심으로 살았기 때문이었다.

루카 10,29-37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착한 사람이 된 것은 측은지심으로 강도당한 사람에게 다가가 도와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먼저 지나간 사제와 레위인은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측은지심은 없었던 것이었다. 마태 25,31-46의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현세에서 가장 작은 이들에게 측은지심을 갖고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받는 오른쪽의 양 무리와 영원한 벌을 받는 왼쪽의 염소 무리로 갈라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측은지심으로 사셨다. 항상 가난에 억눌린 자, 악령에 사로잡힌 자, 질병에 시달린 자, 절망에 빠진 자 등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두 만나 어루만져 주셨다. 그야말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착한 목자가 되셨다.

사목하는 사제들만이 목자가 아니다.

우리는 모두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과 같은 목자들이다. 백성의 지도자, 회사의 대표, 모든 단체와 부서의 장, 가정의 부모도 그 구성원들에게 목자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측은지심으로 이웃을 대하며 착한 목자처럼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측은지심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또 이것은 그리스도교 중심 사상인 사랑의 정신이며, 유교의 인 仁과 불교의 자비 慈悲 사상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가 접하는 음식에는 다섯 가지 맛이 있다. 오미 五味라고 하는데, 시고 쓰고 맵고 달고 짜다고 하는 맛이다. 인생살이에는 두 가지 맛이 있다. 무엇인가? 그것은 '죽을 맛'과 '살맛'이다. 사는 것이 힘들 때 '죽을 맛'이 나고, 사는 것이 즐거울 때는 '살맛'이 난다고 한다.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처럼 자리다툼을 하고, 바리사이들처럼 위선자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먼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측은지심의 삶을 사는 것이 된다. 또 착한 목자가 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감동을 주는 삶이 될 것이다.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6월 평화학교 개최 및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 봉헌



평화학교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

교구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하춘수 레오 신부)는 본단의 아픔이 있는 6월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6/17~25) 기도 운동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였다. 6월 16일 ‘평화아카데미’를 시작으로 6월 22일 제2차 평화학교를 개최하였다. ‘제2차 평화학교’는 명서동성당에서 개최되었으며, 미사와 공연,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는 6월 25일(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의 주례로 교구청 대강당에서 봉헌되었다. 이기문 굴리엘모 신부(민족화해위원회, 삼위일체수도회)는 강론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민족의 화해와 일치’라는 화두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성찰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 중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마태 25,40)이며 이들이 내 형제라고 부르셨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다.”라고 전하였다.

신간소개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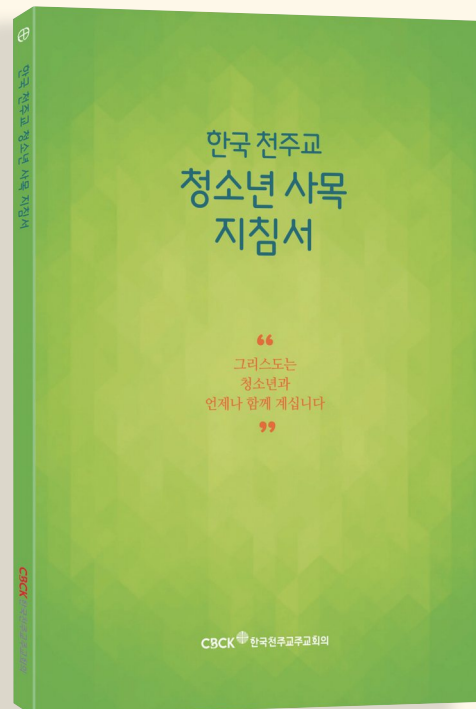
“그리스도는 청소년과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펴내

2012년 위원회가 편찬을 결의한 이래 심포지엄과 공청회, 청년들과의 대화, 질적 양적 연구를 거쳤으며, 그 결과를 집대성하여 2017년 하반기부터 집필에 매진한 뒤 주교회의의 2021년 춘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출판되었다.

이 책은 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에서 청소년, 평신도, 수도자와 성직자 등 청소년 사목을 위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동안 청소년 사목의 시스템 문제와 프로그램 부재뿐 아니라 여러 사안들을 반성하며, 무엇보다도 ‘구원의 역사 안에서 드러난 임마누엘 하느님의 표상과 약속’이 청소년 복음화에 핵심적 원리임을 밝히고, 성경과 교회 교도권에서 이끌어 낸 기본적인 청소년 사목의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 편찬: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
- 규격: 신국판(148×220mm)
- 면수: 160면

새로운 ‘시대의 징표’: 난민,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김종훈 엠마누엘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오늘날 새로운 ‘시대의 징표’는 자신의 조국보다는 더욱더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나은 삶을 찾아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지속적이고 엄청난 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은 이주자들과 난민들의 역경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을 어떠한 형태의 강제적 힘으로부터 자유롭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 더욱더 따뜻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다가가기를 요청합니다.

국경을 넘는 여행자들이 레저를 위한 것이라면, 소비 지향적이기에 당사국에서는 언제든지 환영받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경을 넘는 이들은 대부분 난민이나, 이민이나 망명자이거나 적어도 자신의 모국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한 약자들입니다. 그들은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새롭고 더 나은 안정된 삶을 찾아 모국을 떠납니다.

지난 10년, 국제 난민은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2천6백만 명에 이르는 난민들이 이웃 나라에서 삶의 자리를 찾기 위해 헤매고 있습니다. 세계의 난민들은 대륙 간 이동이 아니라, 근접한 이웃 나라로 이동합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이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유한 나라는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요새’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주민을 막기 위해 설치하고 있는 미국 남부의 ‘벽’이 그 분명한



예일 것입니다. 난민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나라보다는 조금 나은 지역이나 이민이 더 손쉬운 곳으로 먼저 이동합니다.

그러한 이동은 국제 사회의 일명 ‘세계화’라는 현상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일례로, 무역과 금융의 세계화는 폭력적인 ‘박해의 세계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한 사회는 극심한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과 연관되어, 인간은 실용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어, 실용과 비 실용, 가치와 무가치로 양분되는 ‘차별의 세계화’로 내달리고 있으며, 이는 타인의 사정을 헤아리는 ‘공감의 지속성’에 회의를 느끼는 ‘공감 피로’를 재촉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민자들이나, 난민들이나, 불법 거래의 희생자들은 의심과 배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것은 그저 난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라고 공동의 연대와 연민을 강조하였습니다.

유럽 연합(EU) 창립의 아버지 ‘가경자’ 로베르 쉬망

프란치스코 교황은 유럽 연합(EU)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벨기에 태생의 프랑스 정치가 로베르 쉬망(Robert Schuman, 1886~1963)을 교회 반열의 ‘가경자’로 선언하였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프랑스의 총리, 외무장관, 재무 장관으로 봉사한 로베르 쉬망은 매일의 성찬례에 의해 양육되고, 일상의 기도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정치를 “하느님의 구원 의지에 대한 순명 행위로서, 하나의 사명이자 봉사”로 이해하였습니다. 전쟁 중 게슈타포(독일 비밀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구금되는 역경을 겪었지만, 전쟁 후 정치인으로서 프랑스의 윤리적 회복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 경제적 성장을 위한 유럽 공동체 건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쉬망 선언’(1950)에 담겨 있으며, 이는 현 ‘유럽 연합’의 전신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1951)를 출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쉬망의 ‘가경자’ 선포와 함께 “쉬망은 정치적인 이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앙에 따라 행동한 정치인”이었으며, 그를 통해 “유럽 전체가 모든 이들을 위한 연대와 존중을 희망”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로베르 쉬망의 가경자 선포는 현대 정치의 모범으로서, 전 인류 공동체가 신앙에 기초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인류애와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 ‘세계 교회와 시대의 소리’는 이번 호로 마칩니다.
그동안 집필해 주신 김종훈 엠마누엘 신부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교구/본당

예신, 여성소 모임

일시: 7월 11일(주일) 13:30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208차 ME주말 안내

일시: 7월 16일(금) 19:00~18일(주일) 17:30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신청: 7월 9일(금)까지, 전화 및 문자로 접수
(문자 발송시 부부 이름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한진우(미카엘)·문희숙(미카엘라) 부부
010·9150·8738, 010·6281·7859

마리아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7월 기도 모임

일시: 7월 19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미사 시간 추가 및 일정 변경)

영어 미사

창원: 주일 16: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주일 14:30/ 칠암동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주일 16:00/ 명서동성당

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동티모르 미사

통영: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기타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7월 11일(주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서울) 또는 비대면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010·3817·0567, columban.or.kr

제주 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일시: 7월 23일~25일/ 7월 30일~8월 2일/

8월 5일~8일/ 8월 12일~15일/

8월 21일~23일/ 9월 2일~4일

문의: 02·773·1463, 064·756·6009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성경(말씀)피정, 전례(기도)피정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인성, 신앙)

장소: 나자렛예수수녀회 본원 피정의 집

대상: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코로나 종식 전 5명 이내)

문의: 010·2133·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교구청 직원 모집

홍보국에서 함께 일할 임시직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 임시직 1명(2021. 7. 15.~2022. 7. 31.)

접수: 7월 14일(수)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 혹은 방문)

특이사항: 홍보국 업무 보조, 컴퓨터 능통자
(웹디자인, 웹서버 관리 가능자)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 마산교구청 사무처(우 51727)

문의: 사무처 055·249·7019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원하는날(미리연락)	원하는 곳	010·9353·1773(우 노아 수녀)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 **제주성지 순례 3일/ 4일**
7. 26.(월)~7. 29.(목)/ 8. 9.(월)~8. 12.(목)/
8. 13.(금)~8. 15.(주일)/ 8. 16.(월)~8. 18.(수)
■ **한국성지 167 완주**
7. 19.(월)~7. 22.(목) 대전교구 4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진주 함 외과의원
- 치핵(치질)/ 변비치료 - 피부 점/ 티눈 제거 수술
- 피부 혹 제거 수술 - 화상 및 상처 치료
- 귀두 표피 환상 절제술 - 각종 예방접종
진주시 중앙동 16-16번지 2층 (시내 교육청 옆)
TEL. 055) 748-0975
조영현 라파엘 박미리 엘리사벳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소품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일 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성지순례



▶ **기간:** 11월 27일(토)까지-희년 폐막일

▶ **전대사 수여 200주년 희년 순례지**

- 복자 신석복 마르코(명례성지)
- 신석복 마르코 묘지는 진영성당 공동묘지에 있음
- 복자 윤봉문 요셉성지(확인 도장은 묘지 옆에 있음)
- 거제 옥포성당

▶ **순교복자 성지 및 묘지**

- 복자 박대식 빅토리노(확인 도장은 묘지 옆에 있음)
- 복자 구한선 타대오(대산성당, 확인 도장은 묘지 옆에 있음)
- 복자 정찬문 안토니오(사봉공소, 확인 도장은 묘지 옆에 있음)
- 순교자의 딸 유섬이 묘(확인 도장은 묘지 입구에 있음)

▶ **순례참여:** 순례지에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도와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시성 기도, 주모경과 신경을 바칩니다.

※순례 확인증은 각 성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순례지 확인 도장이 찍혀야 성지순례 완주자로 인정합니다.

▶ **접수처:** 우편-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 16길27 천주교 마산교구청 평신도사도직협의회

Email- clacms@hanmail.net FAX- 055·249·7093

SNS- 010·6677·6675(시복시성분과 정승한 예로니모)

※ 보내실 때는 반드시 봉당, 이름, 세례명, 연락처를 적어 주십시오.

제15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국(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목)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 (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
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만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겉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1 여름김장 나누기

여름이니까~ 여름김장

무더위에 식욕부진까지 어려운 이웃에게는 올여름도 걱정입니다.
복지사각에 놓여 더 힘겨운 우리 이웃을 위해 올해도 여름김장을
담급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웃에게 여름김장을 선물해 주세요.

단기모금기간: 7월 13일(화)까지

후원계좌: 농협 301-0083-8432-91, 성산복지관

※ 후원시 복지관으로 연락주세요.

문의: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055·282·3737

여름이니까

여름김장

어려운 이웃의
건강한 여름나기



후원계좌 : 농협 301-0083-8432-91
단기모금기간 : 2021.07.13. 까지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282-3737

만원 후원으로
여름김장을

나두 팔래
기부! 기부!

“하느님 얼굴 그리며...”

수정 성모 트라피스트 수녀원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 꿈을 풀앞에 연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 동그랗게~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이 노랫말은 자신이 품고 있는 사랑하는 이에 대한 마음이 무심코 하는 행동 안에도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노랫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감미로운 멜로디와 함께 이 노랫말이 불러일으키는 서정적인 그리움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느님을 그리워하며 그 얼굴을 찾는 이들입니다. 베네딕도 성인께서는 수도자를 특별히 ‘하느님을 찾는 자’로 정의하십니다. 그분의 수도 규칙에서 권고하는 하느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일과 순명과 모욕을 참는 데 열성을 보이는지 아닌지가 그 기준점이 됩니다. 이것은 수련자가 참으로 하느님을 찾는지를 식별하는 기준이기도 한데, 단지 수도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생활의 횡수가 늘어날수록 깨어 있으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일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루 일곱 번 성당에 모여 하느님을 찬미하는 하느님의 일Opus Dei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를 보살피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아무 의심 없이 믿으며 그분과의 깊은 상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장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생각들과 마음의 움직임들 속에서 시편 기도로 하느님 찬미에 몰입하기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부 베네딕도께서는 시편 기도를 바칠 때, 이렇게 마구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을 목소리와 조화되도록 하라고 권고하십니다. 보통 목소리를 마음에 맞추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목소리에 맞추는 것입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과 자극에도 쉽게 요동치는 마음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신 성인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목소리에 맞출 때, 신기하게도 우리가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그 말씀에 온 마음을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감정 기복을 조금씩 넘어서 자기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마음을 향할 때, 하느님의 일, 성무일도는 자기 초월의 시간이 되며, 어느 교부께서 표현하신 대로 하느님의 일 안에서 ‘말씀을 관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생활에서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찾고 그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건너간 이는 형제들의 공동생활 안에서 장상에게, 형제들 상호 간에 기꺼이 순명을 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명하신 그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가해지는 온갖 모욕까지도 기꺼이 참아 받기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성인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이것을 할 수 있기에 너무도 부족하니, 주님께서 당신 은총으로써 우리를 도와 주시도록 간구하자고(규칙 머리말, 41) 저희들을 토닥이십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도피하지 않으면 수도생활과 신앙에 나아감에 따라 마음이 넓어지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감미로써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 얼굴을 보게 될 것임을 믿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제 영혼도 위의 노랫말처럼 무심코 하는 제 행동이 저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분 얼굴을 그리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축복을 기대해봅니다.